

2019년 8월 14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과장 송지숙(044-201-1831), 사무관 박은철(2985) / 제공일: 8월 13일(총3매)
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과장 정준용(063-238-1040), 연구관 이종호(1053)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 과장 김현란(3271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농식품부, 열대거세미나방 발생 주의 당부

- 전국 23개 시군 옥수수 포장에서 발생, 피해는 아직 미미 -
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이개호, 이하 농식품부)는 지난 6.13일 제주에서 처음 발견된 열대거세미나방(Fall Armyworm)이 8.12일 현재 전국 23개 시군(36개 포장 확진, 7개 포장 정밀 검사 중)에서 발생하였으나, 그 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.
- 중국으로부터 기류를 타고 날아 온 열대거세미나방은 제주(6.13일), 전 남·북(6.24), 경남(6.28)을 거쳐 경북·충북(7.23), 충남(7.30), 강원(8.2) 등 북쪽으로 확산하고 있다.
 - 열대거세미나방이 기주하는 옥수수에서의 발생주율*(재배주수 당 발생주수 비율)은 충남 서천과 경남 고성 일부포장(3포장 10~20%)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% 내외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* 옥수수, 수단그라스(사료작물)외 다른 농작물은 피해 보고 없음
- 열대거세미나방은 유충시기에 식물의 잎과 줄기에 피해를 주는데, 기주식물은 80여 작물이며 주로 옥수수 등 화본과 작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
 - 열대 및 아열대가 원산으로, 전세계 104개국*에 급속히 확산되었으며, 우리나라에서는 월동이 불가**하여 국내 정착 가능성은 낮다.

* 전 세계 104개국(아시아 13, 아프리카 46, 아메리카 45 등)에서 발생

** 겨울철 기온이 10℃이하로 내려가는 곳(서리가 내리는 곳)에서는 월동 불가능

○ 다만, 중국에서 연중 날아와 반복적인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초기에 발견하고 방제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농가에서의 주의가 필요하다.

* 농식품부·농진청·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열대거세미나방 국내 유입 대비 예찰·방제 매뉴얼 마련(5.10), 대책반 편성·운영(5월말). 초기에 신속 방제가 가능토록 사전 방제약제 직권등록(5월말, 26개 작물 53개 농약품목), 농업인 홍보(5월말~) 등 실시

□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(도농업기술원, 시·군 농업기술센터)과 협력하여 열대거세미나방의 신속한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조사* 및 등록된 적용약제로 방제작업 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.

* 농진청은 서해안 거점지역(6개도 22개시군)에 트랩 예찰(5.3.~), 지자체는 예찰포(137개소) 조사(5.1~), 옥수수 재배지 육안조사(106개 시군 312개소) 및 트랩(102개 시군 221개소) 조사(6.10~) 실시 중

○ 특히, 열대거세미나방이 중국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태풍 “레끼마”를 통해 유입 개체수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예찰조사 및 방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.

□ 농식품부 관계자는 ‘열대거세미나방은 신속하게 찾아내서 초기에 방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’이라고 말하며, 옥수수 등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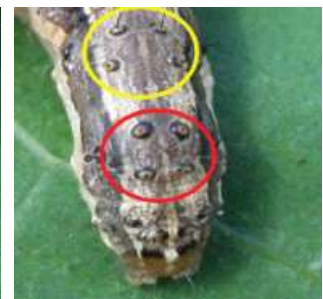
붙임 열대거세미나방 개요 1부. 끝.

<열대거세미나방(fall armyworm, *Spodoptera frugiperda*)의 특징>

- 분류 : 우리나라 검역(관리)병해충(1996.12.07. 지정)
- 분포 : 아메리카 대륙 열대 및 아열대 원산, 아메리카(남, 북, 중앙)
 - 전세계 104개국(아시아 13, 아프리카 46, 아메리카 45 등)에서 발생
 - * 인도·태국·베트남·중국·대만·일본·우리나라에서도 발생
- 기주 : 80여종의 식물을 가해하는 광식성 해충
 - * 작물 : 주로 옥수수에 피해를 주며, 수수·사탕수수·벼 등 화본과 작물 선호
- 생태 : 1세대는 약 44일(알 4, 유충 17, 번데기 10, 성충 13일), 산란 수는 총 1,000개
- 피해 : 유충 때 작물(어린 것 선호)의 잎과 줄기를 가해
 - 특히 대량 발생 및 장거리 이동을 통해 작물 수확량에 큰 손실을 가져옴



<성충 : (좌)수컷 (우)암컷> (사진 출처: 수컷(CABI, 2018), 암컷(EPP0, 2018))



<알덩어리(좌)와 애벌레> (사진 출처: FAO, 2017)